

##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조 용 래<sup>†</sup>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김 은 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지각된 통제감의 부족은 불안장애 등 정서장애에 대한 심리적 취약성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외부 위협과 내적으로 생성된 정서 및 신체반응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불안통제 질문지(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CQ)'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후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고자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ACQ는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통제 불능감'과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등 2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독립된 표본에서 반복 검증되었다. 연구 2에서 한국판 ACQ는 2주 및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았다. 연구 3에서 한국판 ACQ는 전반적인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는 Rotter의 내외 통제소재 척도에 비해 불안증상 측정도구와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연구 4에서 한국판 ACQ로 측정된 지각된 불안 통제감은 생활스트레스 경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불안증상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들은 한국판 ACQ가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매우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하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지각된 불안 통제감, 한국판 ACQ, 불안장애, 심리적 취약성, 심리측정적 속성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03-1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03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 용 래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번지

FAX : 033-256-3424 / E-mail : yrcho@hallym.ac.kr

불안장애와 우울증 같은 정서장애가 혐오적 사건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perceived control)의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는 오랫동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Alloy, Kelly, Mineka, & Clements, 1990; Barlow, 1988, 1991; Beck, Emery, & Greenberg, 1985; Chorpita & Barlow, 1998; Mineka, 1985). 특히, Barlow와 그 동료들(Barlow, 1988, 1991; Barlow, Chorpita, & Tuborsky, 1996; Chorpita & Barlow, 1998)에 따르면 초기 어린 시절에 통제 불가능한 사건(예: 술 취한 아버지의 폭행)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경우 이러한 반복된 경험이 한 개인의 인지적 소인이 되어 중성적이거나 통제 가능한 사건조차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성장기 초기에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의 부족이라는 일종의 심리적 취약성이 형성되며, 이로 인해 종국에는 만성적인 불안이나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기 쉽다는 것이다.

지각된 통제감과 불안/불안장애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개관해 보면, 다음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위협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측정치에서 불안장애 집단 간, 또는 불안집단과 비불안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예: 신현균, 원호택, 1991; 박기환, 최영희, 윤혜영, 2003; Cloitre, Heimberg, Liebowitz, & Gitow, 1992)이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집단 또는 불안장애 집단은 비불안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건을 더 통제 불가능하다고 지각하거나 전반적인 내적 통제감 수준이 더 낮았다. 다음으로, 운전이나 뱀 같은 물리적 상황과 발표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 그런 상황들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과 차별적으로 각 상황에 대한 예측된 공포나 불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Rapee, 1997)가 있다. 연구 결과, 물

리적 위협상황에 대한 공포에는 지각된 통제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에, 사회적 위협상황에 대한 공포에는 위협의 결과에 대한 지각과 함께 위협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지각된 통제감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정환경과 아동기 불안간의 관계에 지각된 통제감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Chorpita, Brown, & Barlow, 1998)도 있다.

이 외에, 신체감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실험적으로 조작한 후 공황이나 공포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Sanderson, Rapee, & Barlow, 1989; Telch, Silverman, & Schmidt, 1996)과 통제 가능-통제 불가능한 위협 및 만성적 걱정이 정보탐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다룬 연구(예: 최혜경, 2003) 등이 있다. 이 마지막 두 부류에 해당되는 연구들에서 다룬 지각된 통제감은 실험상황에 의해 조작되어진 것이므로, 안정된 개인차변인의 성격을 떠는 특질(trait)로 보기는 어렵고 상태(state) 용어로 개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각된 통제감의 부족을 불안과 불안장애와 관련시켜 연구한 역사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이나(예: Mandler, 1972; Mowrer & Vick, 1948), 이런 오랜 역사에 비해 불안과 불안장애의 발생 및 유지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종의 심리적 취약성요인으로서의 지각된 통제감의 역할을 적절하게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인 것 같다.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통제감의 부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구성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는 도구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Rotter(1966)에 의해 개발된 내외 통제

소재(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LOC) 척도'가 많은 연구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개인의 통제 소재가 외부에 있는지 또는 내부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에 의해 한국말로 번안되었다. Rotter(1966)의 원래 의도는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일반화된 통제 기대(generalized expectancy of control)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LOC 척도는 내적 일치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며(범위 = .65~.79), 이 척도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척도들은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예: 차재호 등, 1973; Harper, Oei, Mendalgio, & Evans, 1990; Klockars & Varnum, 1975; Lange & Tiggemann, 1981; Levenson, 1973; Rotter, 1966). 이러한 결과들은 지각된 통제감을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간주해야 하며 한 개인 내에서도 그의 상이한 삶의 영역별로 지각된 통제감이 다소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apee, Craske, Brown, & Barlow, 199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삶의 영역에 국한된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후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은 이론적 연구 및 임상실제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Rapee 등(1996)은 불안유발 자극에 특정한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불안통제 질문지(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CQ)'를 비교적 최근에 개발하였다. ACQ는 기존 척도들이 재는 구성개념에 비해 불안장애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외부의 위협자극과 정서적 및 신체적 감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재고자 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요인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그리고 치

료적 변화에 대한 민감성 모두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CQ의 요인구조에 대한 후속 연구(Zebb & Moore, 1999)와, ACQ로 측정된 지각된 불안 통제감이 공황관련 위협자극에 대한 인지적 편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Zvolensky et al., 2001)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ACQ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및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두 표본을 통해 한국판 ACQ의 요인 구조와 내적 일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 방법

### 연구 대상

지방 소재 세 곳의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총 773명(남자 343명, 여자 430명)이 연구 1에 참여하였다. 이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0.75세(표준편차 2.31세, 범위: 17~30세)였다. 한국판 ACQ의 요인구조를 집단 간에 비교해 보기 위하여, 전체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두 표본으로 나누었다. 표본 1에 속한 대학생은 총 387명(남자 175명, 여자 21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81세(표준편차 2.34세, 범위: 17세~29세)이었으며, 표본 2에 속한 대학생은 총 386명(남자 168명, 여자 21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69세(표준편차 2.29세, 범위: 17세~30세)이었다.

## 측정도구

**불안통제 질문지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CQ)**

이 검사는 불안관련 사상들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Rapee 등(1996)이 개발한 총 30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내용에 대해 자신의 평소 신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6 점 척도(0점: 아주 일치하지 않는다 ~ 5점: 아주 일치한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30개 문항 중 18개는 반대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고, 총 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통제감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원판 ACQ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7~.89, 1달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r = .82$  였으며, 수렴 및 변별타당도 모두 양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민감한 척도로 밝혀졌다(Rapee et al., 1996).

한국판 ACQ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제작되었다. 먼저, 원판 ACQ의 문항들을 한국말로 번역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2명이 각자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에 번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두 사람 간에 상호 협의를 거쳤으며,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임상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심리학 교수 1명이 제 3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3자간에 최종 합의에 이른 번역내용들을 채택하였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문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역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판 ACQ의 문항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 결과 및 논의

## 요인 구조

표본 1에 속한 대학생들이 한국판 ACQ의 30 개 문항에 반응한 자료에 대해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8개 나왔으나(6.66, 2.44, 1.55, 1.30, 1.22, 1.12, 1.10, 1.03), scree 검사의 결과 및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2 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해 준 후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delta = 0)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결과를 기초로, 다음 두 가지 기준, 즉 특정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두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Floyd & Widaman, 1995) 특정 문항이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요인 1은 ‘두려운 (무서운)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문항 14)’ 등 16개 문항들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통제 불능감’으로 이름 붙여졌다. 요인 2는 ‘나는 내 증상에 대처하는 능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서 불안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문항 22)’ 등 12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22.21%, 요인 2는 8.13%를 설명하였고, 두 요인간의 상관은 .38이었다. 각 문항 별로 두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가 나와 있는 요인형태계수행렬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 2의 자료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1. 각 표본별 한국판 ACQ의 요인형태계수 행렬

| 문항 번호 | 표본 1       |            | 표본 2       |            |
|-------|------------|------------|------------|------------|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1       | 요인 2       |
| 1     | .08        | <u>.52</u> | -.07       | <u>.56</u> |
| 2     | <u>.33</u> | .04        | <u>.34</u> | .03        |
| 3     | <u>.47</u> | .04        | <u>.36</u> | .23        |
| 4     | -.15       | <u>.43</u> | .06        | <u>.37</u> |
| 5     | <u>.57</u> | .01        | <u>.55</u> | .17        |
| 6     | .26        | .03        | .12        | .11        |
| 7     | <u>.48</u> | -.02       | <u>.58</u> | .14        |
| 8     | <u>.38</u> | -.05       | <u>.51</u> | -.05       |
| 9     | <u>.40</u> | .05        | <u>.34</u> | .11        |
| 10    | .18        | <u>.35</u> | -.01       | <u>.59</u> |
| 11    | -.05       | <u>.32</u> | -.15       | <u>.42</u> |
| 12    | -.02       | <u>.31</u> | -.05       | <u>.41</u> |
| 13    | .23        | <u>.47</u> | .13        | <u>.66</u> |
| 14    | <u>.74</u> | .05        | <u>.75</u> | .03        |
| 15    | <u>.61</u> | -.04       | <u>.61</u> | -.07       |
| 16    | <u>.50</u> | -.06       | <u>.59</u> | -.09       |
| 17    | .05        | <u>.54</u> | .06        | <u>.54</u> |
| 18    | <u>.35</u> | -.04       | <u>.42</u> | -.02       |
| 19    | .02        | <u>.48</u> | .06        | <u>.45</u> |
| 20    | <u>.53</u> | .02        | <u>.52</u> | .05        |
| 21    | -.03       | <u>.55</u> | .05        | <u>.55</u> |
| 22    | .07        | <u>.66</u> | .06        | <u>.70</u> |
| 23    | <u>.47</u> | .08        | <u>.43</u> | .08        |
| 24    | <u>.50</u> | .31        | <u>.57</u> | .22        |
| 25    | <u>.38</u> | .07        | .29        | .17        |
| 26    | .35        | .30        | .21        | <u>.43</u> |
| 27    | .20        | <u>.65</u> | .14        | <u>.62</u> |
| 28    | <u>.40</u> | -.13       | <u>.45</u> | -.05       |
| 29    | .09        | <u>.40</u> | .13        | <u>.35</u> |
| 30    | <u>.36</u> | .25        | <u>.46</u> | .15        |

주. 굵은 글씨의 밑줄을 친 숫자는 해당 문항이 특정 요인에 부하 되었음을 의미함.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7개 나왔으나(7.23, 2.62, 1.48, 1.30, 1.19, 1.15, 1.00), scree 검사의 결과 및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2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해 준 후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delta = 0)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결과에 대해, 표본 1의 결과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특정 문항이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요인 1에는 15개 문항들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요인 2에는 13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24.10%, 요인 2는 8.72%를 설명하였고, 두 요인간의 상관은 .42였다. 각 문항별 요인부하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 1과 표본 2의 요인분석 결과는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sup>1)</sup>

#### 내적 일치도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표본에 대하여 한국판 ACQ의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 및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은 표본 1의 경우  $r = .18$  (문항 4) ~ .62 (문항 24), 표본 2의 경우  $r = .19$  (문항 11) ~ .62 (문항 24)로서 문항 동질성이 대체로 적절해 보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표본 1의 경우 전체 측

1) 한국판 ACQ의 요인구조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 1에 참가한 대학생 전체 표본을 남녀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로 요인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하게 남녀 모두 2 요인구조를 보였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역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 .86, 요인 1 척도 .82, 요인 2 척도 .79였으며, 표본 2의 경우 전체 척도 .87, 요인 1 척도 .83, 요인 2 척도 .81이었다.<sup>2)</sup> 따라서 표본 1과 표본 2의 자료를 통해 검증된 한국판 ACQ의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다고 하겠다.

## 연구 2

한국판 AC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연구 2를 수행하였다

### 방법

####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두 집단이 연구 2에 참가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대학생 27명(남자 8명, 여자 19명)으로서 2주 간격으로 한국판 ACQ를 두 번 작성하였으며, 두 번째 집단은 대학생 58명(남자 10명, 여자 48명)으로서 4주 간격으로 한국판 ACQ를 두 번 작성하였다. 전자의 평균 연령은 22.22세(표준편차 1.50세, 범위: 20~26세), 후자의 평균 연령은 21.72세(표준편차 1.78세, 범위: 20~28세)였다.

### 결과 및 논의

#### 시간적 안정성

2주 간격으로 두 번 측정한 경우, 시기 1의 평균 점수는 89.78점(표준편차 18.98점), 시기 2의 평균 점수는 89.74점(표준편차 21.71점) 이었으며, 두 시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6) = .02, ns$ ).

4주 간격으로 두 번 측정한 경우, 시기 1의 평균 점수는 91.88점(표준편차 17.74점), 시기 2의 평균 점수는 90.38점(표준편차 16.69점) 이었으며, 두 시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57) = 1.08, ns$ ).

#### 검사-재검사 신뢰도

한국판 AC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2주 간격의 경우  $r = .89(p < .001)$ , 4주 간격의 경우  $r = .81(p < .001)$ 이었다. 이 결과들은 한국판 AC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판 ACQ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구성개념, 즉 일종의 특질을 평가한다고 하겠다.

## 연구 3

한국판 ACQ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3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판 ACQ는 불안증상, 우울증상 및 전반적인 지각된 통제감을 각각 평가하는 측정도구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과, 한국판 ACQ는 전반적인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는 Rotter(1966)<sup>9)</sup>

2) 표본 2의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표 1 참조)를 살펴보면, 문항 25는 요인 1에 대한 요인부하계수가 .29로서 본 연구에서 요인포함 기준으로 설정한 첫 번째 기준에 약간 미흡하였지만 표본 1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요인 1의 척도에 포함시켰다. 이와 비슷하게, 문항 26은 요인포함 기준상 요인 2에 부하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표본 1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요인 2의 척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내외 통제소재 척도에 비해 불안증상에 대한 측정도구와 더 강한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69명(남자 42명, 여자 27명)이 연구 3에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4.26세(표준 편차 2.19세, 범위: 21 ~30세)였다.

### 측정도구

한국판 ACQ의 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 검사 외에, 다음 척도들을 함께 사용하였다.

####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이 척도는 불안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가 개발한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서, 지난 1주일 동안 각 문항에서 기술하는 증상으로 인해 불편하게 느낀 정도를 0점에서 3점까지 Likert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Kwon(1992)에 의해 번역된 한국판 BAI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한 연구(한은경, 조용래,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2003)에서 번역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일부 문항들을 수정한 한국판 BAI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수정된 한국판 BA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반분신뢰도는 .91이었다.

####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이 척도는 Beck 등이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 Beck, Rush, Shaw, & Emery, 1979).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역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네 문장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피검사자의 경험에 적합한 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판 BD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2, 반분신뢰도는 .88이었다(이영호, 송종용, 1991).

#### 내외 통제소재 척도(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 LOC)

이 척도는 어떤 사건의 통제 소재가 내부에 있는지 또는 외부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Rotter(1966)가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이 척도는 원래 총 29개 문항(끼우개 문항 6개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내부 또는 외부 통제소재를 나타내는 두 가지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판 LOC 척도는 차재호 등(1973)이 원판 LOC 척도를 기초로 총 21개 문항(끼우개 문항 6개 문항 포함)으로 만든 검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 통제지향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판 LOC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여대생 집단 .46, 기혼 여성집단 .73이었고,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이었다(차재호 등, 1973).

## 결과 및 논의

### 각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관계

한국판 ACQ와 다른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척도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판 ACQ는 LOC 척도와 중등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불안 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수록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제소재가 외부 지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판 ACQ는 한국판 BAI 및 BDI와 각각 중등도의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지각된 불안 통제감이 낮을수록 불안수준 뿐 아니라 우울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판 LOC 척도와 이 두 가지 증상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들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제소재가 외부 지향적일수록 불안수준 및 우울수준이 더 높아짐을 나타낸다.

한국판 ACQ가 Rotter(1966)의 내외 통제소재 척도에 비해 불안증상에 대한 측정도구와 더 강한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해당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판 ACQ는 한국판 LOC 척도에 비해 한국판 BAI와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t(65) = -4.66, p < .001$ ). 부가적으로, 한국판 ACQ와 BDI의 상관은 한국판 LOC 척도와 BDI의 상관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t(65) = -5.01, p < .001$ ). 이 결과들은 연구 3의 두 가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생각된다.

### 성차 및 연령의 효과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정도에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두 집단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남자의 평균은 96.00점(표준편차 16.92점), 여자의 평균은 90.63점(표준편차 19.51점)으로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t(66) = 1.21, ns$ ).

연령과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수준 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연령과 한국판 ACQ 전체 점수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8, ns$ ).

표 2. 한국판 ACQ와 다른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관계

| 측정도구 | ACQ     | LOC  | BAI    | 평균    | 표준편차  |
|------|---------|------|--------|-------|-------|
| ACQ  | --      |      |        | 93.87 | 18.05 |
| LOC  | -.48*** | --   |        | 6.78  | 3.11  |
| BAI  | -.54*** | .30* |        | 11.47 | 9.74  |
| BDI  | -.58*** | .30* | .56*** | 7.75  | 6.33  |

주.  $n = 68$ .

ACQ = 불안통제질문지; LOC = 내외통제소재 척도; BAI = Beck 불안척도;

BDI = Beck 우울척도.

\* $p < .05$ . \*\* $p < .001$ .

따라서 연구 3의 결과들은 한국판 ACQ로 측정된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정도는 성차 및 연령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과, 이 검사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양호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연구 4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며, 특히 개인의 취약성요인이 그러한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생활사건은 일종의 촉발자극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 Cheng, 2001; Chorpita & Barlow,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4에서는 한국판 ACQ의 구성타당도를 더 검토해 보기 위하여, 한국판 ACQ로 측정된 지각된 불안 통제감이 생활스트레스 경험 수준 및 불안증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리적 취약성의 하나로서 여겨지는 지각된 불안 통제감이 생활스트레스 경험 수준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생활스트레스 경험의 영향을 사전에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불안 통제감이 불안증상의 정도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 방법

#### 연구대상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461명(남자 246명, 여자 21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0.72세(표준 편차 2.14세, 범위: 18~33세)였다.

#### 측정도구

한국판 ACQ의 구성타당도를 더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 검사와, 연구 3에서 소개한 한국판 BAI, 그리고 스트레스 사건경험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 스트레스 사건경험 질문지 (Stressful Life Events Questionnaire)

이 질문지는 스트레스 경험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평숙 (1984)이 제작한 것을 이영호(1993)가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들만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총 5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에서는 각 문항별로 최근 3개월간의 경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는 .82였다.

### 결과 및 논의

#### 각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관계

한국판 ACQ와 스트레스 사건경험 질문지 및 한국판 BAI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척도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ACQ는 한국판 BAI 와 유의미한 상관,  $r = -.36, p < .001$ 을 보인 반면에 스트레스 사건 경험 질문지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2, ns$ ). 스트레스 사건경험 질문지와 한국판 BAI의 상관은 유의미하였다( $r = .28, p < .001$ ).

#### 불안증상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효과

대학생의 불안증상에 대한 지각된 불안 통제

표 3. 불안증상을 준거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단계 | 예언변인                        | $R^2$ | $\Delta R^2$ | F      | df     | $\beta$ | t          |
|----|-----------------------------|-------|--------------|--------|--------|---------|------------|
| 1  | 생활스트레스                      | .078  | .078         | 38.680 | 1, 459 | .279    | 6.219 ***  |
| 2  | 지각된 불안 통제감                  | .208  | .130         | 75.375 | 1, 458 | -.361   | -8.682 *** |
| 3  | 생활스트레스와 지각된<br>불안 통제감의 상호작용 | .210  | .002         | 1.360  | 1, 457 | -.049   | -1.166     |

주. n = 461.

\*\*\*  $p < .001$ .

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즉 한국판 BAI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생활스트레스 경험수준을 첫 번째 예언변인으로, 지각된 통제감을 두 번째 예언변인으로, 그리고 이 두 변인들의 상호작용<sup>3)</sup>을 세 번째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에 나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예언변인은 불안증상의 총 변량 중 21.00%를 설명하였으며, 생활스트레스 경험의 효과를 통제적으로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반면에,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4의 결과들은 한국판 ACQ로 측정된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정도가 생활스트레스 경험과는 상관이 없으며, 대학생의 불안증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국판 ACQ의 구성타당도를 지지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불안장애 등 정서장애에 대한 심리적 취약성의 하나로 간주되는 지각된 통제감의 부족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ACQ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한국판 검사로 제작한 후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및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판 ACQ의 30문항에 대한 자료를 대학생 표본으로부터 수집한 후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검사는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통제 불능감'과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등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독립된 표본에서 반복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두 요인들이 원판 ACQ가 재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부합되기는 하지만, Rapee 등 (1996)<sup>4)</sup> 보고한 원판 ACQ의 두 요인, 즉 외부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적인 정서적 반응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요인과는 문항구성이 맞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된 Zebb와 Moore (1999)<sup>5)</sup>의

3) 중다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할 때 발생하기 쉬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예언변인별로 centering을 시킨 후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발견과는 대체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요인은 Zebb와 Moore(1999)의 불안통제의 내부 소재 요인과 동일하며,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통제 불능감' 요인은 그들의 내적 스트레스와 정서반응에 대한 무기력감 요인과, 외부 사상에 대한 무기력감 요인 등 두 개의 요인들과 비교적 일치한다. 특히 Zebb와 Moore(1999)의 자료를 2 요인으로 지정한 후 요인분석을 했을 때 나온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거의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ACQ의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온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각 연구에 참가한 표본의 차이를 들 수 있다(Zebb & Moore, 1999). Rapee 등 (1996)이 원판 ACQ를 개발할 때 참가한 최초의 표본은 불안장애 환자들이었다. 이에 반해, Zebb 와 Moore(1999)의 연구 및 본 연구에 참가한 표본은 양자 모두 대학생 집단이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비임상집단이거나 또는 임상적인 불안집단이냐의 차이로만 서로 다른 결과를 모두 설명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불안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문항을 개발한 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Rapee 등(1996)의 후속 연구에서 원판 ACQ는 각 요인별 문항구성 및 각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그들의 선행 연구 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2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Zebb와 Moore(1999) 및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이 두 가지 연구에서 나온 세 개 또는 두 개의 요인 모두 ACQ가 원래 재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각 요인에 높게 부하된 문항들은 그 내용이 긍정적인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다소 복잡한 개념화를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문항의 기술방식과 연관된 반응 스타일이라는 일종의 인위적 사실 (artifact)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유형의 요인구조는 다른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분석적 연구결과들과 일치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불안/불안장애와 관련된 연구들 예 : Beck, Stanley, & Zebb, 1995; Fresco, Heimberg, Mennin, & Turk, 2002)은 걱정의 유무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Watson, Clark, & Tellegen, 1988)에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를 각각 여러 종류의 정서적 고통과 차별적으로 관계되는 서로 구분되는 구성개념들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출된 두 개의 요인들이 지각된 불안 통제감이라는 구성개념의 서로 다른 측면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내용과는 무관한 방법 효과(substantively irrelevant method effects)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추후 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한국판 ACQ 전체 척도 및 각 요인에 높게 부하된 문항들로 구성된 두 개의 하위 척도들의 내적 일치도는 모두 높았다. 한국판 ACQ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Rapee 등(1996) 및 Zebb와 Moore(1999)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였으며, 이 수치는 모두 Rotter(1966)의 LOC 척도의 내적 일치도(Harper et al., 1990; Lange & Tiggeman, 1981)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한국판 ACQ<sup>1</sup>의 첫 번째 요인의 설명변량은 22.21~24.10% - 원판 ACQ<sup>2</sup>의 경우 25% - 로 LOC 척도의 약 15%보다 다소 나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한국판 ACQ는 LOC 척도에 비해 불안증상과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Rotter의 LOC 척도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

다는 제한점을 원판 및 한국판 ACQ가 개선했다는 점, 다시 말해, 이 척도가 어떤 특정한 영역을 잘 반영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한국판 ACQ의 2주 및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았다는 점은 한국판 ACQ가 측정하는 구성개념이 어떤 특정한 영역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된 구성개념, 즉 특질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뿐 아니라 다른 결과들도 역시 한국판 ACQ의 구성타당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척도는 생활스트레스 경험 수준과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에 한국판 LOC 척도 및 불안증상의 정도를 재는 한국판 BAI 양자 모두와 중등도의 상관을 보였다. 특히 한국판 ACQ와 한국판 BAI의 상관은 LOC 척도와 한국판 BAI의 상관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한국판 ACQ로 측정된 지각된 불안 통제감은 생활스트레스 경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불안증상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견들은 한국판 ACQ로 측정한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수준이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에 노출된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LOC 척도와 같은 전반적인 지각된 통제감에 대한 측정도구에 비해 불안/불안장애와 더 특정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각된 통제감의 평가도구로 ACQ를 사용할 것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한국판 ACQ는 불안장애 등 정서장애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임상 실무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Rapee 등(1996)은 그들의 논문에서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론적 연구 및 임상 실무에서 ACQ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즉 “(ACQ의) 두 번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지하는 증거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단

일한 측정치로서 이 척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한다”(Rapee et al., 1996, p. 289)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현재로서는 한국판 ACQ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한국판 ACQ의 요인구조에 대한 주요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 한국판 ACQ를 지각된 불안 통제감에 대한 단일차원의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으로, 한국판 ACQ는 불안장애의 심리적 취약성의 하나로 간주되는 지각된 불안 통제감의 부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해 주며, 그럼으로써 불안장애의 발생과 유지과정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기여하는 역할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임상 실제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평가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치료의 효과 및 작용 기제를 확인하려고 할 때 한국판 ACQ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황이나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을 미리 선별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문제가 공황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판 ACQ를 사용하여 불안관련 신체감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선별한 후 이 사람들에게 복식호흡이나 이완훈련, 또는 인지적 재구성훈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그런 신체감각들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통제하도록 돋게 되면, 그들의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 및 앞으로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표본에 국한된 것이므로, 앞으로 지역사회 표본과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에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판 ACQ의 요인구조에 대한 더

욱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특히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적으로 유용한 측정도구로서 한국판 ACQ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이 척도가 치료 동안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상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탐지하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셋째, ACQ가 측정하는 개념이 불안 특성적인 취약성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정신병리에 대한 취약성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판 ACQ 점수가 실제 불안장애 환자들에게서 낮게 나타나고, 일반인이나 불안과 관련이 없는 장애들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차별적 양상을 보이는지도 향후 연구해 보아야 할 주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ACQ는 불안불안장애와 이론적으로 관련된 지각된 통제감의 특정한 영역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 생각되며, 불안장애 등 정서장애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임상 실제에서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박기환, 최영희, 윤혜영 (2003).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개인의 통제 소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사회공포증 환자와 공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7-138.
- 신현균, 원호태 (1991). 비합리적 사고와 귀인양식에 있어서 우울집단과 불안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269-285.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미발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평숙 (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양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미발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 (1973). 내·외 통제 척도 작성.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 노우트*, 2, 263-271.
- 최혜경 (2003). 만성적 근심과 통제가능·불가능한 위협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287-302.
- 한은경, 조용래,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2003).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요인구조: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261-271.
- Alloy, L. B., Kelly, K. A., Mineka, S., & Clements, C. M. (1990). Cor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A helplessness-hopelessness perspective. In J. D. Maser and C. R. Cloninger (Eds.), *Cormorbidity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Barlow, D. H. (1988). *Anxiety and its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arlow, D. H. (1991). The nature of anxiety: Anxiety, depression, and emotional disorders. In R. M. Rapee, & D. H. Barlow (Eds.), *Chronic anxiety: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mixed anxiety depression* (pp. 1-28). New York: Guilford Press.
- Barlow, D. H., Chorpita, B. F., & Tuborsky, J. (1996). Fear, panic, anxiety, and the disorders of emotion. In D. A. Hop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erspectives on anxiety*.

- panic, and fear* (Vol. 43, pp. 251-32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New York: Basic Books.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ck, J. G., Stanley, M. A., & Zebb, B. J. (1995).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in older adults. *Journal of Clinical Geropsychology*, 1, 33-42.
- Cheng, S. K. (2001). Life stress, problem solv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nes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303-310.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 3-21.
- Cloitre, M., Heimberg, R. G., Liebowitz, M. R., & Gitow, A. (1992). Perceptions of control in panic disorder and social phobi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5, 569-577.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86-299.
- Fresco, D. M., Heimberg, R. G., Mennin, D. S., & Turk, C. L. (200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313-323.
- Harper, H., Oei, T. P. S., Mendaglio, S., & Evans, L. (1990). Dimensionality, validity, and utility of the I-E scale with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4, 89-98.
- Klockars, A. J., & Varnum, S. W. (1975). A test of the dimensionality assumptions of Rotter's Internal-External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9, 397-404.
- Kwon, S.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nom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land University, Australia.
- Lange, R. V., & Tiggemann, M. (1981). Dimensionality and reliability of the Rotter I-E locus of control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398-406.
- Levenson, H. (1973). Multidimensional locus of control in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97-404.
- Mandler, G. (1972). Helplessness: Theory and research in anxiety. In C. D. Spielberger (Ed.),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III*. New York: Academic Press.
- Mineka, S. (1985). Animal models of anxiety based disorders: Their usefulness and limitations. In

- A. H. Tuma & J. D. Maser (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pp. 199-244). Hillsdale, NJ: Erlbaum.
- Mowrer, D. H., & Vick, P. (1948). An experimental analogue of fear from a sense of helplessnes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3, 193-200.
- Rapee, R. M. (1997). Perceived threat and perceived control as predictors of the degree of fear in physical and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5, 455-461.
- Rapee, R. M., Craske, M. G., Brown, T. A., & Barlow, D. H. (1996). Measurement of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Behavior Therapy*, 27, 279-293.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Sanderson, W. C., Rapee, R. M., & Barlow, D. H. (1989). The influence of an illusion of control on panic attacks induced via inhalation of 5.5% carbon dioxide-enriched ai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157-164.
- Telch, M. J., Silverman, A., & Schmidt, N. B. (1996). Effects of anxiety sensitivity and perceived control on emotional responding to caffeine challeng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0, 21-35.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Zebb, B. J., & Moore, M. C. (1999). Another look at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1091-1103.
- Zvolensky, M. J., Heffner, M., Eifert, G. H., Spira, A. P., Feldner, M. T., & Brown, R. A. (2001). Incremental validity of perceived control dimensions in the differential prediction of interpretive biases for threa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 75-83.

원고접수일 : 2004. 2. 3

제재결정일 : 2004. 3. 29

##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Yongrae Cho

Eun-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A lack of perceived control is known to be a psychological vulnerability to emotional disorders such as anxiety disorders. This article described four studies examin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Korean version of th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CQ) developed recently to assess perceived control over external threats and internally generated emotional and bodily reactions. In Study 1,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of the K-ACQ revealed a two-factor solution - "a sense of uncontrollability over anxiety-related events" and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 which was then replicated in an independent sample. The results of Study 2 demonstrated good test-retest reliability over both two- and four-week periods. In Study 3, the K-ACQ correlated more strongly with a measure of anxiety than did the Rotter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 a more global measure of perceived control. In Study 4, perceived anxiety control measured with the K-ACQ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predictive of anxiety symptoms after the effect of life stress was controlled.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ACQ is a highly reliable, valid measure to assess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Keywords : Perceived anxiety control, Korean version of the ACQ, anxiety disorders, psychological vulnerability, psychometric properties.*

부록 1.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 (K-ACQ) 의 문항내용

1. 나는 대개 위협을 아주 쉽게 피할 수 있다.
2. 내가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 유무에 달려 있다
3.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자제력을 상실할 것 같다
4. 나의 불안한 모습이 대개 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
5.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6. 내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하든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 같다.
7.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데에 내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8. 두려운(무서운) 상황에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느냐 여부는 항상 내 운에 달려 있다
9. 나는 종종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봄이 떨린다.
10. 나는 대개 걱정스러운 생각을 마음으로부터 쉽게 떨칠 수 있다.
11.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숨이 너무 가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2. 나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을 주는 정도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 나는 불안수준을 통제(조절) 할 수 있다.
14. 두려운(무서운)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15. 어려운(곤란한) 상황이 해결되는 정도는 내가 하는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
16. 무엇인가가 나를 해치려(상처 입히려)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건 나를 해칠 것이다
17. 나는 원하는 때에 보통 이완 할 수 있다.
18.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알 수는 없다.
19. 내가 어떤 일을 할 경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대개 확신할 수 있다.
20. 나를 불안하게 하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내 통제력을 벗어나 있다.
21. 나는 어려운(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다.
22. 나는 내 증상에 대처하는 능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곤란한) 상황에서 불안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23.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대체로 내 통제력을 벗어나 있다.
24. 나는 대개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힘들다.
25.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때, 다음은 내 차례 일까봐 걱정된다.
26. 불안할 때에는 불안 외의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가 어렵다.
27. 나는 예상하는 불안만큼 예상치 못한 불안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8. “내가 경험하는 불안의 빈도나 강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불안을 이겨내려고 애쓰는가?” 하고 때때로 생각한다
29. 나는 “까다로운” 사람들과 종종 잘 어울릴 수 있다.
30. 나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것이다.